

동양제철화학 백우석 사장 취임

과감한 추진력 · 결단력 평가 ... 이수영 회장 단독대표체제 전환

동양제철화학은 6월30일 이복영 사장이 삼광유리공업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공동대표이사 체제에서 이수영 회장 단독 대표체제로 전환됐다고 공시했다.

동양제철화학 사장에는 계열사 이테크건설 백우석 사장이 임명됐다.

백우석 사장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양제철화학에서 경영관리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동양제철화학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이복영 삼광유리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이회림 명예회장 차남이자 이수영 회장(장남) 동생이다.

동양제철화학은 앞으로 이수영 회장이 최대주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이복영 회장은 삼광유리공업과 이테크건설을 맡게 된다.

3남인 이회영 사장은 계열 화학기업인 유니드 경영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제철화학은 5월24일 삼광유리 지분 22.04%(107만주)를 이복영 회장에게 매각했고 계열사인 이테크건설 주식 30.71%도 삼광유리공업에, 5%는 이복영 회장에게 매각했다.

신임 백우석 사장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후 1975년 동양화학(현 동양제철화학)에 입사해 국제영업부 부장을 거쳐 기초화학사업부 본부장, 경영관리본부장을 역임한 국제통으로 알려져 있다.

백우석 사장은 능통한 영어를 바탕으로 동양제철화학이 국내 굴지의 화학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1996년 당시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임하면서 동양화학의 구조조정에 실무책임을 맡아 성공적으로 업무를 완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후 동양제철화학 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동양제철화학은 백우석 사장 영입을 계기로 글로벌 시대에 세계적 종합화학기업으로서 제2의 도약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양제철화학은 백우석 사장 발탁 배경에 대해 “국내외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글로벌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해 국제적 감각과 결단력, 그리고 과감한 추진력을 가진 젊은 인물로 백우석 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5/07/04>